

STORY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명분없는 권력의 광기, 조선 중흥 결정적 기회 건너차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ohdjn11@naver.com



한국 사극 영화 가운데 조선 제14대 왕 선조를 가장 잘 그린 작품은 이준익 감독의 2009년작 '구르물 버서난 달처림'이다. 선조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비겁한 왕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익 감독은 그를 가장 교활하고 예민한 성격의 인물로 간파한다. 생각해 보면 무능하기만 해서야 40년 7개월을 재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그 유명한 당파 싸움은 선조 때 시작됐다. 이조전랑 자리(지금의 공천권을 갖는 직책)를 놓고 김효원(퇴계 이항 계)과 심의겸(율곡 이이 계)이 대립한 것이 시작이다.

김효원·심의겸 파 모두 사림(士林)을 대표했으며 당시, 곧 선조 재임기는 이 두 파가 조선 건국과 초기 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공신파, 일명 훈구파들과 대립해 새로운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었다. 이후 김효원을 지지하던 신하들은 동인으로, 심의겸 파는 서인으로 자리잡았으며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선다. 선조에서 광해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북인이 권력을 쥐는데, 북인 중에서도 대북파가 소북파를 누르고 권력을 쥘다. 대북파는 외교 강경 노선이 주요 노선이었으며 덕분에 광해군은 명이나 후금이나를 놓고 실리적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시대 후퇴시킨 왕들의 잔혹극

선조 때부터 '핏빛' 당파싸움

남인·서인 아합으로 집권한 인조

권력 지키려 친아들마저 독살

개혁군주 였던 광해군 쫓겨나고

신문물 접했던 소현세자 의문사

순조 이후 조선 몰락의 길 앞당겨

심을 가장 우습게 여긴 시대의 유산이다(이 부분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

'구르물 버서난 달처림'은 1592년의 임진왜란과 정여립의 난, 곧 대동계의 정변을 영화적 상상으로 엮은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은 돌인데 황정학(황정민)과 이몽학(차승원)이다. 둘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자며 대동계의 열혈 멤버로 활동했으나 이몽학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점차 세속적 권력의 의지를 보이자 갈라지게 된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영화의 핵심 축이 된다. 황정학은 일종의 왕당파이고 이몽학은 공화파인 셈이 된다. 이몽학을 굳이 프랑스 혁명 때와 비교하자면 로베스피에르 정도가 된다. 어쨌든 조선은, 왕은 도망가고 개혁파 지식인들은 분열했으며 나라는 왜구의 침입으로 풍전등화의 상태가 된다. '구르물 버서난 달처림'에서 죽어가는 이몽학을 품에 안고 그의 오랜 연인인 백지(한지혜)는 이렇게 되뇌이며 눈물을 흘린다. "내 가슴에 늘 당신이 있었는데 당신 가슴 속에는 내가 없었구려." 조선의 남자는 늘 거대담론, 곧 세상을 구한다는 이론을 내세우는 척,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 한 명을 견사하지 못한다. 여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내, 곧 일개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자,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이준익의 메시지였다.

정여립은 서인이었으며 중도에 동인으로 이적한 변절자였다. 한편으로 보면 현실적 정치인이었다는 얘기다. 정여립의 몰락은 기축옥사(선조 22년)로 이어지고 동인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결국 이는



씨네 파일

구르물 버서난 달처림(2010) (사전1)

감독 이준익 주연 황정민 차승원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사전2)

감독 추창민 주연 이병헌 류승룡

대립군(2017) (사전3)

감독 정윤철 주연 이정재 여진구

울베미(2022) (사전4)

감독 안태진 주연 류준열 유해진

광해의 지지 기반이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조선 왕조 500년 중 가장 비극적 시대 대북파의 대표 격으로 권력의 실세였던 허균이 광해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오해는 순전히 추창민의 걸출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영화에서 허균(류승룡)은 광해(이병헌)를 암살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일명 '가게무사(그림자 왕이란 뜻의 일본어)'를 내세운다. 하지만 허균은 이후 역모로 몰려

철)마저도 독살했을까. 영화는 궁 내의 침술사(류준열)가 어의(최무성)가 저지르는 살해 과정을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그린다. 침술사는 낮에는 맹인이지만 밤에는 사물의 윤곽이나마 볼 수 있는 주맹증(晝盲症) 환자다. 독살은 어둠 속에서 벌어진다.

광해군의 즉위가 오래 갔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영민함을 그린 영화가 2017년 나왔던 정윤철 감독의 '대립군'이다. 여진구가 어린 광해로 나오고 대립군(생계를 위해 돈을 받고 남의 군역을 치르는 빈민)의 두목 '토우' 역으로 이정재가 나온다. 영화 '대립군'은 도망간 선조 대신 광해군이 민초들과 함께 왜군에 대항하는 의병 활동 얘기를 그린다.

조선은 중흥의 기회가 딱 세 번 있었다. 세종 때가 그랬고, 개혁군주 광해 때가 그랬으며, 인조는 망조의 인물이었어도 청(후금)에 불모로 잡혀간 8년 동안 신문물을 접했던 아들 소현세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것이며, 뛰어난 군주였던 정조의 치세가 대를 이을 수 있었으면 그랬을 것이다. 정조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영조의 계비, 곧 의붓할머니 정순왕후에게 독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이어지고 순조-철종-현종-고종-순종으로 이어지며 조선은 몰락의 길로 간다. 이 과정은 이준익의 또 다른 영화 '자산어보'에서 그려진다. 조선은 선조와 광해 집권기, 그리고 소현세자 시기에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영화는 늘 명분 없는 권력의 허망함을 그린다. 영화 안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는 늘 영화가 된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영화 번역가 당시 파켓과 2014년 들꽃 영화상을 만들고 현재까지 운영. '작은 것이 좋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당신은 영화를 믿지 않겠지만'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